제9강 프란시스 베이컨 : 신경 충돌을 통한 사물로부터 야생적 이미지의 생성Ⅱ

(1교시-0723-03)

◎ 베이컨의 이미지 리얼리즘

▶ 변용에의 몰입

* 그림 3-1 <십자가 발치에 있는 인물들에 관한 세 습작>(1944)
: 인간과 조류의 합성에 의한 괴물의 탄생을 보여준다. (인간의 얼굴에 늘어진 목, 새의 몸통의 절묘한 결합과 짙은 주홍색의 배경 등이 사물이 주는 생경한 원초적 세계로 인도함.)
: 그 어떤 상상에 의해서도 미처 다가서지 못한 생경한 감각의 세계가 우리의 망막을 정신 깊숙이 가득 채운다.
: 베이컨의 편집광적인 집착이 나타남.

* 그림 <개와 함께 있는 조르주 다이어의 두 연구>
: 인물의 그림자가 개로 나타남.
: 찐득찐득한 액체감.
: 실물과 그림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결합되면서 분리되는 방식.

▶ 신경적 해체에 대한 집착

- 피카소에게서 받은 영향

* 그림 3-2 <자화상>(1971)
: 베이컨의 대표적인 자화상. 피카소의 영향(다중시선기법)을 여실히 드러내는 작품.
: 자신의 모습이 신경 충돌을 일으켜 기형적으로 왜곡되는 총체적인 상황을 절묘하게 포착.

* 그림 3-3 <이사벨 로스돈의 머리를 위한 세 습작>(1965)
: 피카소의 다중시선기법을 넘어 색채가 넘쳐흐름을 보여준다.
: 사진과의 비교 (오히려 인간에 가깝다.)

* 그림 3-4 <루시앙 프로이트의 초상화를 위한 세 습작>(1965)
: 운동성, 이미지의 힘이 느껴진다.(인간 자신의 존재감을 깨우치게 하는 아름답고 강렬한 힘)

⇒ 존재의 우발성. 존재의 무의미성이 몸을 거칠게 몰아치는 장면.

(2교시-0723-04)

www.artnstudy.com

▶ 견딜 수 없이 용해되고 마는 사태

- 해체의 급진전으로 인해 녹아내리는 사물. 기형적 왜곡의 형태.

* 그림 4-1/4-2 <1973년 5-6월의 3부작>(1973)
: 조르주 다이어의 자살을 그린 삼면화.

* 그림 4-3 <거울 속에 누워있는 형상>(1971)
: 언뜻, 헨리 무어의 조각과 같은 느낌을 주나 연체동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름.
: <자전거를 타는 조르주 다이어의 초상>(1966), <아이스킬로스의 '오레스테스'에서 영감을 얻은 3부작>(1981)도 이와 비슷하다.

* 그림 4-4 <투우 연구 1>(1969)
: 투우를 하는 사람의 몸이 투우의 몸에 용해되어 빨려 들어가는 형상을 표현.

* 그림, <걸어가는 남과 여>(1988)
: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용해되어 합쳐진 상태에다 그 상태의 일부가 그림자로 빨려 나가버린 상태를 기묘하게 결합해서 표현. (색감이 주는 힘과 형태의 조화가 편안함을 느끼게 함. 아름다움의 경지)

▶ 외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물의 **이탈**

- 이탈은, 이미지 자체의 생동적인 독자성을 잘 드러내주는 힘.
- 교황의 그림 : 감정에 의한 공간 성격의 규정. 공간의 성격에 의해 사물의 성격이 규정되면서 공간과 사물이 감정 자체인 것으로 드러남.

* 그림 4-5 모티브가 된 그림 - 벨라스케즈, <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>(1650)
* 그림 4-6 비명을 지르는 교황의 그림
: 비명을 지르는 공간을 떠올리게 함. 죽음, 꿈, 밤, 폭력 등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의 다양성.

▶ 알갱이로 바스러지는 경지

- 베이컨의 폭력적인 회화적 힘은 결국 인물의 몸을 자잘한 먼지와 같은 모래 알갱이로 바꾸어 버린다.

* 그림 4-7/4-6 <모래언덕 1983/1981>
: 일상적인 집안의 공간에 인물의 몸이 고체적인 방식 내지는 기체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자잘하게 해체되는 경지. 신문지마저 모래알갱이로 부서지는 모습.
☞ 베이컨, "말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." (도미노, p.105)

www.artnstudy.com

▶ 액화상태

* 그림, 4-9 <분수>(1979)
: 몸이 아예 물줄기로 용해되어 튀어 오른다.
: 물로 된 그림 자체는 이미지이나, 그 이미지를 볼 때 그것을 못 느끼게 한다.
: 폭발하듯 솟구쳐 오르는 시간.

▶ 반사를 통해 획득되는 실재

- 거울 바깥의 형상과 거울 속의 형상이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존재 즉 실재성을 강화해 주는 관계를 묘사함. 어느 것이 거울이고 어느 것이 사물인지 알 수 없는 경지.

* 그림, 4-10 <검은 거울>
: 본질을 비추는 거울

* 그림, 4-11 <푸른 거울>
: 분열의 거울

◎ 20세기 최고의 화가, 베이컨

- 사물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여러 종류의 힘을 발휘하면서 짐승처럼 살아 있는 온갖 이미지들을 생성해 내는가를 포착.
- 그 이미지들의 생생한 생성의 현장을 한 점의 군더더기도 없이 절묘하게 포착해서 그려낸다.

www.artnstudy.com